

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글로벌 보험사, 중국 건강보험시장 진출 경쟁

- 남아프리카공화국(이하 남아공) 건강보험회사인 디스커버리(Discovery)는 최근 중국 건강보험시장 진출을 위해 대형 보험그룹인 중국핑안보험과 제휴에 합의 하는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함.
 - 디스커버리는 중국핑안보험 산하 핑안건강보험의 지분 24.99%를 인수하기로 하고,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(이하 보감회)와 남아공 중앙은행의 최종 승인만이 남아 있는 상황임.
 - 17년의 역사를 지닌 디스커버리는 건강보험을 주력으로 하는 남아공 최대 보험 회사로 2000년에 건강보험과 전통보험 연계 판매로 크게 성공하면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으며, 현재 남아공 현지 건강보험 시장의 40%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.
 - 이번 제휴로 디스커버리는 핑안보험의 강력한 판매채널 및 고객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, 핑안보험은 선진 건강보험 관련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
- 새로 시행될 의료개혁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건강보험회사들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음.
 - 디스커버리 외에도 세계 최대 건강보험 관리회사인 모빌리티세인트아너(Mobility Saint Honore)도 상하이타이카이기업관리유한공사(上海泰凯企业管理有限公司)와 손잡고 이미 중국 건강보험시장에 진출했으며, 영국 부파그룹(BUPA, 保柏集团), 미국 웰포인트(Wellpoint, 维朋公司) 등 글로벌 건강보험 전문회사들도 앞다퉀 중국 건강보험시장 진출을 선언한 상태임.
 - 보감회 통계에 따르면, 2008년 중국 건강보험시장 수입보험료는 전체 수입보험료의 5.98%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보험선진국의 30% 수준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치임.
 - 또한 선진국의 상업건강보험 비용이 전체 의료비용의 40%를 점유하고 있는데 비해, 중국은 4% 수준에 그치는 등 글로벌 건강보험회사들은 중국 건강보험 시장의 높은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음.

(북경상보, 12/2)